



소문난 융합 교육 현장에서 '개교 5년' 채드윅 국제학교

한비탕 입시 전쟁을 치르고 나면 수험생 부모들은 흙가분해지지만, 남은 학부모들은 곧 다가올 입시 걱정에 자녀 교육을 되돌아보게 된다. 과연 제대로 배우고 있을까? 더 나은 교육은 없을까? 그 해답을 채드윅 국제학교에서 찾았다.

취재 문해경프리랜서 사진 이동현(castudio)

미국 영문 시학 채드윅 스쿨의 제2캠퍼스인 채드윅 국제학교가 인천 송도에 개교한 지 벌써 5년. 채드윅은 송도의 명물이자 전국 학부모들의 워너비 학교로 자리 잡았다. 채드윅의 인기는 무엇보다 다른 국제학교에 비해 낮은 10% 이하의 중도 탈학률이 증명한다. 재학생이 만족하는 학교라는 것.

입시철을 맞아 교육에 더욱 관심이 모이지는 요즘, 학생이 좋아하는 학교의 비결을 찾아 채드윅 국제학교를 직접 방문했다. 일단 첫인상은 개교 당시인 2010년 하계에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넘치는 느낌. 현재 총 학생 수는 유아원과 유치원부터 11학년까지 870명. 아직 12학년은 없고 2016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재학생 중 약 20% 이상이 외국 국적 학생으로, 무려만 국제학교인 곳과 달리 28개국 출신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과 교사가 함께 공부하고 있다.

체험 위주의 주제별 연계 수업

채드윅 국제학교의 수업은 독특하다. 국제 공인 교육 과정인 인터내셔널 박Carlсон(IIB)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하여 학심 주제(Unit)에 따라 학습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영어·사회·수학·과학·제2외국어·체육·공연예술·미술·음악 등을 수강하는 중학교(6~8학년)가 있고, 고등학교(9~12학년) 과정 또한 반대로 같은 과목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과목을 연계해서 듣는다.

기장 먼저 들어간 2학년 교실에서는 'How we organize ourselves'라는 제목의 수업이 한창이었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이 농장에서 미트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수업. 아이들은 오후에 있을 배 배기 실험을 위해 Rice란 토픽을 가지고 성장 과정, 성장 세포, 윤도 등 자마다 다양한 방향으로 조사 중이었다. 교실 한편에는 인큐베이터에서 베이비 부화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미 열한 마리가 부화했고 또 한 마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이들이 자랑했다. 이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마크 포터(Mark Potter) 교사는 '매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파이어스마켓이 열리는데, 올해는 아이들이 달걀과 텃밭에 직접 심은 채소 등을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바닐라우스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마켓에 어떤 과정을 거쳐 물건이 도착하고, 또 그 물건들

셀리 투크 틸리 총괄 교감은 초등학교 교장도 역임 중이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그녀의 집무실이 놀이터가 된다. 아이와 함께 디자인 팀과 사이를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





2



3

1 김비연 3D 프린터기까지 제대로 갖춘 Makers Space 교실. 실생활에 사용되는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보는 수업으로 한 프로젝트를 일주일에 두 번씩 주제를 바꿔 진행한다. 무엇을 만들지 정하는 일부분은 완성까지 오롯이 아이들의 몫이다 2 배경기 상습을 미끼하고 봄나온 2학년 아이들,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베어나거나 '직접 빠져 민저보고 썰어온 듯 딱도 먹었다'며 대장질해 3 학생 중심의 자유로운 분위기, 이게 바로 챠드윅 스피리얼이다.

을 어울게 가공해서 판매해야 더 잘 팔릴 수 있는지까지 확장해서 알아보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에요.” 심지어 오후에 있을 벼 베기 실습도 올봄 직접 심고 키워 수확하는 것이란다.

걸음을 옮겨 ‘Makers Space’란 교실에 들어가 보았다. 또 다른 2학년 아이들이 설계 도면을 그리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어떤 아이는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병아리 악이가 나오는 시스템, 또 한 아이는 식물의 성장에 따라 햇볕의 양을 조절해주는 기계를 디자인하고 있었다. 지도 교사인 게리 도나휴(Gary Donahue)는 “‘Makers Space’ 수업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보는 수업으로 아이들이 지금 판 플랜에 고사기 사인을 해주면 그 후부턴 아이들이 직접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만들고 있는 물건이 또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 물어보니 이날 수업의 텁터명도 ‘How we organize ourselves’, 앞서 참관한 2학년 반 수업과 같은 텁터를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이해영 홍보하시는 “하나의 유닛 아래 서로 다른 교과목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이러한 단위별 질의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했다.

배워서 남 줘야 진짜 글로벌 인재

고학년 학생들이 공연 중인 현관 앞 복도를 지나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엘리 루크 월리(Shelly Luke Wille) 총괄 교감의 집무실. 엘리 루크 월리 총괄 교감은 초등학교 교장도 역임 중이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곳곳에 아무렇게나 놓인 장난감과 책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심지어 한쪽에는 빙 페트병, 상자 등이 쌓여 있다. 에디터의 의아한 눈빛을 알았는지 총괄 교감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다”며 “폐품은 디자인 탐구 사이클(Creative Design in Inquiry Cycle) 수업 준비물”이라고 설명한다.

방문한 날 역시 ‘Tree House Design’ 이런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엘리 루크 월리 총괄 교감은 이 수업이 단순한 만들기 수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Empathize or Turn in-Find out and Research-Sort





1 알록달록 때깔부터 다른 채드윅 도서관. 수업은 물론 연주회, 각자 초청 만남의 시간 등이 이루어졌다. 2, 3 채드윅에서는 문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 해결하며, 나아가 또 다른 문제 해결까지 확장하는 그 과정 자체에 의의를 둔다. 따라서 단순히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생각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이끄는 것이 채드윅의 수업 방식이다.

out and Plan-'Go further and Test make and Take action' 등 문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 해결하며, 나아가 또 다른 문제 해결까지 확장하는 그 과정 자체에 의의를 둔다. 실제로 한 한국 학생의 워크지를 살펴보니 완벽한 영작문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타입의 공간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not so big but so small, they will sleep, eat, have fun'이라 채워 넣었고, 등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 글로벌 시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성과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이 중요하다. 현재 채드윅에서 시행 중인 수업 방식은 글로벌 시대에 안 맞았던가? 그렇다. 고시 교육, 고교 수학 등 교과서 위주의 정형화된 국내 교과 과정과 비교했을 때 꼭 놀이처럼 보이는 이 낯선 융합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다. 펠리 루크 월리 교감 역시 한국 학부모들의 불안함을 이해한다.

"디자인 팀구 사이클을 통해 아이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비탕으로 또 무언가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창의성과 수학 능력, 디자인 능력이 필요하죠. 채드윅에서는 이런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는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의 성장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는지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해요."

물론 채드윅에도 표준화된 평가 제도가 있고, 학년별로 많은 학습량을 소화한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의 경우 더욱 할 일이 많다. 채드윅 고등학생의 약 80%가 북미 지역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데 이를 위해 미국 내에서 단기간 머물며 채드윅 본교에서 수업을 받고 SAT 시험까지 응시하고 오는 일정도 접두어다. 유학을 목표로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그러나 교육이란 단순히 좋은 성적을 얻는 것 이상이라는 신념을 지난 채드윅에선 학부모에게 전진 환경보다 교육 철학을 먼저 설명한다. 이날 어느 교실에 가기도 볼 수 있었던 질문하는데 주저함이 없던 아이들을 떠올리니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아이들은 채드윅에 영어를 배우러 오지 않는다. 잠재력을 발견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영어가 쓰임 분이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력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의 핵심 셀리 루크 월리 총괄 교감 인터뷰



셀리 루크 월리 총괄 교감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립 학교 블루 스쿨에서 6년간 교장으로 역임하여 초등 과정 커리큘럼 개발 및 실행력을 주도했다. 채드윅에서도 초등 커리큘럼 설계를 주도한 펠리 루크 월리 총괄 교감은 스스로 팀구에 걸리코 이 사회를 위해 무얼 할 수 있으면 생각하고 또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마다 채드윅에서 바라는 한 교육 과정의 꿈이라고 강조한다.

Q 채드윅 국제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 중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채드윅은 학생에서 시작해서 발전하는 학생이 중심인 학교입니다. 아이들 각각의 재능이 무엇인지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알아내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눈이 놀라울 부분은 제가 IBM과 과정을 기반으로 디자인 오스를 접목해 설계한 디자인 팀구 사이클입니다. 수업에서 만든 축구공을 예로 들게요. 이 축구공은 안에 배터리를 있어 공을 발로 차면 충전이 되어 불이 들어와요. 전기가 필요한 마일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걸서 끌어는 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걸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교육에 채드윅의 핵심 가치인 배움과 책임감이 녹아 있습니다.

Q 왜 창의성과 인성에 주목하나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근간 자체가 그런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인구의 분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성적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대체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교사는 그런 의지를 발휘하게 해주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요. 배움을 위한 배움이 아니라 정의성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2010년 개교 후 벌써 5년만의 시간이 훌쩍过去了. 5년 동안 이런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5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5년 동안 가장 성장하고 싶은 부분은 부모님 손에서 가능한 교육을 해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딴 14세 유아원 과정부터 고교 과정까지 14년 동안 아이들을 서포트해온 수 있는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은 세계관을 키워나갑니다. 한 가지 더 자랑한다면 채드윅에서는 아이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언어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친구가 필요한지 등을 각 부모에게 전달하여 확대 교육 같은 깊은 커뮤니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하나같이 고생하고 대안적으로 인턴십, 지역 학교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교육부문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비를 찾아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Q 현재 산업상을 모집 중인데, 학력을 위한 조건을 해준다면 두 가지 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아이는 호기심 많은 아이. 학부모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입니다. 그런 많이 놀아보아 아이에게 가능해요. 어辱에 속죄로 reading, writing, play 및 세 가지만 내겠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키우고 자유롭게 지내면서 독립도도 길러진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팀은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고 있는 학부모인데요. 아이와 매일 밤 책을 읽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찾고 딱하는 연습도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Q 입학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매년 상황이 바뀌어서 경쟁률을 정확히 알기기는 힘듭니다 교과부에서 승인받은 총 등급 2008년의 40%까지 한국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드윅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이 많은데 그 학원들이 학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예요. 저는 학부모들이 유학을 위해 영어 공부를 위해서 아이를 이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으면 좋겠어요. 교육의 목적은 누구보다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 많은 것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즐기고 떠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아이는 없으니까요.